

꽤 막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돌파구' 찾을까

“공장 이전 증명 확실하면 용도 변경” 강기정 시장, 합평이전 입장 공식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 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이전과 관련,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사장, 합평군수와 만나 이야기도 해봤지만 결론은 법을 지켜야 하고, 광주공장(가동)을 멈춰야만 용도변경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 절차를 위한) 스타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장 ‘선(先)이전 후(後) 용도 변경’에 대한 중재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광주시가 답보 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이전과 관련,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 측이 막대한 매각자금만 챙기고, 신규투자나 공공기여 약속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역 내에서 제기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KTX 송정역 세권을 개발하려던 광주시는 물론 낡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금호타이어, 대규모 공장 유지에 나선 합평군도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과 불신 등에 가로막힌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일단 법이 그렇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측에서 일단 계약한 땅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고용 조건 승계 여부 등 몇 가지 조건만 제시한다면 광주시도 곧바로 용도변경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선분양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업자측과 협약에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분양방식 전환을 제안받지 않았고 고려해 본 적도 없다”며 “후분양을 추진중인 사업자가 (광주시에) 선분양 전환을 접수한다면, 그때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2021년 6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체결했으며, 당시 사업조정협의회에서는 공공기여 등을 전제조건으로 ‘분양 시점에 선분양이 가능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자측은 “2021년 협약 당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감소하는 금융비용 등을 시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선분양 전환 등 사업 재조정을 광주시에 신청하지는 않았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광주시에 협의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 역사신문 만들기 NIE 체험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광주일보가 신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진행되는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광주 지역 초·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대상 및 기간
 - 모집 대상 : 광주지역 초·중학교(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 기간(일시) : 2023년 8월 16일 ~ 2023년 8월 31일
-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 주요사업 내용
 -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역사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체험학습
 - 역사신문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 및 기획, 취재, 제작 과정 교육
 -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참가
 - 지역신문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각 1회)
 - 역사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체험학습(각 2회)
 - 선정된 4개 학교 신문사 방문 현장 체험학습
 - 〈역사신문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 및 기획, 취재, 제작 과정 교육(3회)〉
- 선정학교 지원 내역
 -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원
 - 학교별 찾아가는 교육 실습 및 현장 체험
- 담당자 연락처
 - 광주일보사 제2사회부 김대성 부장 (062-220-0680, 010-7609-4937)

光州日報社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 민간공항 무안 이전 빨리 발표하라”

목포MBC 대담서 이전 촉구...광주시 입장 주목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을 전명할 것을 광주시에 재차 요청했다. 답보상태인 군 공항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무안 공항 활성화를 통한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광주시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목포MBC의 ‘공황의 미래, 도민이 묻고 전남 지사가 답하다’라는 대담 방송에 출연,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진척이 많이 없다”면서 “최소한 군 공항 문제 해결 실마리가 풀리면 바로 즉각 (민간공항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광주시가 선언해줘야 우리(전

남도)가 예비후보지도 지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민간공항은 줄 필요가 없다’, ‘늦게 주지 뭐’ 이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무안군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전 예비후보지 지정 등 실질적인 진척이 있으려면 광주시가 우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8년 전남도·무안군과 합의한 상생협약을 파기하는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신뢰 관계를 깨트린 만큼 ‘협약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또 무안군의 군 공항 이전 반발과 관련, 공기업 이전, 항공정비(MRO) 산단·AI 농생명 벨리, 2만명 규모의 신도시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해당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누구나 탐내는 공기업 하나 좁은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등에) 주장을 했고 MRO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고 농생명 벨리도 공항과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이런 거 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 인구가 늘어나니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전남도는 1만 5000명~2만명 정도 수용할 신도시를 만들어 무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안 인구가 10만명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시 승격도 되면서 무안 발전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대담 현장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받은 군 공항 소음대책,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개발 제한 문제, 무안공항과 동부권과의 대중교통망 연결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시민 행복 ‘소확행’ 정책 확대

청년 정책 문자 알림 서비스 등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시민 행복을 담은 ‘소확행’ 정책을 확대·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반값 아침 한 끼,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어린이집 부모 필요경비 10만원 지원, 임신부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정책 문자 알림 등을 이른바 소확행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반값 아침 한 끼는 시에서 비용 50%를 지원하는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시행 다섯 달째에 접어들어 현재 하루 평균 120~13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그동안 정부와 학생 1000원씩, 나머지 금액을 대학에

서 부담하는 방식이었는데, 광주시는 올 2학기부터 5개 대학 4만 9000여명에 1000원씩을 보태기로 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도 만족도가 높은 소확행 정책 중 하나다. 초등 1학년 학부모 오전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 문자 알림 서비스, 임신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공공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민간 전문가 무료 자문 정책 등이 생활 속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이처럼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